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2.5.(월) 조간 2022.12.4.(일) 11:00	배포 일시	2022. 12. 2.(금) 오후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서지원 (044-200-5255)

한국의 센토사! 시흥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 - 요트부터 리조트까지,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2월 5일, 시화호 거북섬 인근에서 수도권 유일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조정식, 문정복, 송미희 시흥시 의회 의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해양 특색에 맞는 해양 레저관광 인프라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집에서 2시간 내의 거리에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제주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시흥을 포함한 총 5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2023년에는 추가로 1개 지방자치단체를 더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 고성군, 제주특별자치도, 보성군, 군산시, 시흥시

시흥시는 7개 권역 중 하나인 수도권의 유일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시행자로서, 마리나를 주제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 향만이 시화호 거북섬에 들어설 예정이다. 일 년 365일 언제나 레저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화호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의 거대한

레저 수요가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총 사업비 336억 원 중 절반인 168억 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아쿠아팻랜드, 해양생태과학관, 거북섬 복합 리조트, 스트리트몰2 등의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저와 체험, 쇼핑과 휴식이 한꺼번에 가능한 한국의 센토사라 할 만 하다. 아쿠아팻랜드는 생산, 연구, 유통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관상어 산업기반으로, 해양생태과학관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복원·증식과 해양생태학습의 장으로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두 곳 모두 건립 예산을 지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시흥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이 수도권 시민의 해양레저에 대한 갈증을 풀어 줄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 거점 마리나항만, 해양레저관광 복합도시 조성 등 일련의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산업화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